

#맛집 #모바일 #친환경... 유통가 명절선물 변화 키워드

신세계백화점 우텐더·계방식당 등 맛집 선물세트 품목 20% 늘려

롯데백화점 노포 맛집 세트 비롯해 전국의 명인·이색 선물세트 강화

현대백화점 유명맛집 레시피 활용 굴비 등 20여종 2만세트 한정판매



신세계백화점에서 모델들이 명절 선물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모델이 신세계상품권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고객이 롯데백화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롯데쇼핑

설 명절을 2주가량 앞두고 유통업체가 분주하다. 올해는 유명 맛집과 협업한 미식 선물세트를 비롯해 모바일 선물세트를 강화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유명 맛집과 협업한 상품의 매출은 매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냈다. 최근 3년간 신세계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은 2017년 2.1%, 2018년 14.3%, 2019년 7.2%로, 이중 맛집과 협업한 설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은 2017년 7.8%, 2018년 22.4%, 2019년 11.5%를 기록했다. 맛집과 협업한 설 선물세트의 매출 증가율이 전체 설 선물 매출 증가율의 최대 3배가 넘는 것이다.

◆유명 맛집을 선물하자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설보다 맛집 협업 선물세트 품목을 20% 늘렸다. 압구정동 소고기 '우텐더', 장요리 전문점 '계방식당', 숙성한우 맛집 '우가' 등 더 다양한 식당과 손잡고 제품을 내놨다. 우가와 계방식당의 경우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 품목으로 1++ 등급 한우만 사용한 안심 스테이크와 채끝, 등심 스테이크가 담긴 '우텐더 시그니처 세트', 1++ 숙성 등심과 차돌박이로만 구성된 '우가 숙성한우 세트' 전통 비법을 그대로 담은 '계방식당 간장계장 세트' 등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노포 맛집 세트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만든 선물세트, 이색 재료 세트 등을 강화해 선보인다. 34년 전통의 한우 전문점 '벽제갈비'의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 세트. /현대백화점그룹

'벽제 감사 세트', 갈비 명가 '송추가마골'의 '스페셜 가마골 세트' 등을 판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명인'들의 선물세트도 총 8종 준비했다. 전통 식품명인 제35호 '기순도 명인'의 '전통 장 증가 세트 2호'와 식품명인 제37호 '권기옥 명인'의 '명인궁중장-황(皇)'이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도 유명 맛집의 레시피를 활용한 양념육, 전통 식품 명인의 장류를 더한 굴비 등 선물세트 20여 종을 2만세트 한정으로 판매한다. 전통식품 브랜드 '명인명촌'과 협업한 '육독세트' '굴비 세트'로 맛을 차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맛집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명절 선물로도 맛과 품질을 살린 미식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 맛집도 백화점 입점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세는 모바일 선물하기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이른바

'선물하기'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롯데백화점은 오는 23일까지 카카오톡에서 롯데백화점의 인기 설 선물 세트를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X카카오톡 설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명절을 맞아 부담 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카카오톡 선물 세트와의 차별화를 위해 정육, 청과 등 신선식품의 경우, 백화점 전용 포장을 제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에서 검색창에 롯데백화점을 입력한 뒤 원하는 상품을 선택, 선물하기를 누른 후 선물할 친구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된다. 이후 선물 받을 사람이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품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2~5일 내 발송된다.

SSG닷컴은 기존 운영 중이던 '선물하기' 서비스를 전문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간단한 모바일 교환권부터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판매 상품까지

폭넓은 상품 구색이 강점이다.

신세계 상품권 역시 명절 선물에서 빠질 수 없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24, 스타벅스 등 전국의 신세계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론, SSG PAY 어플을 이용해 SSG머니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친환경 포장재로 전면교체

백화점 업계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불필요한 포장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설 명절부터 과일 선물세트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모두 종이로 교체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박스'도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전체 과일 선물세트의 30% 수준인 1만개에 종이 완충 받침을 우선 도입하고 2021년까지 모든 과일 세트 포장을 종이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기옷·속옷 등 세탁기로 삶으세요”

홈플러스 '파세코 미니클린' 선보

홈플러스는 속옷이나 수건, 아기 옷 등 부피가 작은 빨래를 따로 삶음 세탁할 수 있는 '파세코 미니 클린'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수용량 2.8kg의 소형 세탁기인 이상 품은 사이즈(405*725*385mm) 역시 컴팩트하게 디자인됐다. 공간 효율성이 높아 1인 가구에서 사용하거나 세컨드 세탁기로 적합하다.

본체는 깔끔한 흰색으로 구성하고 상판은 블랙 글라스 도어를 통해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을 줬다. 상판에 위치한 조작부는 터치식으로 만들어 세련미까지 높였다.

컴팩트한 크기만큼 알찬 기능도 갖추

고 있다. 먼저 아기 옷, 고온 세탁, 고온 삶음 등 총 세 가지의 삶음 기능이 탑재돼 있어 용도에 맞는 세탁을 지원한다. 특히 위생 관리가 중요한 아기 옷의 경우 크기가 큰 일반 세탁기에서 때론 고온 세탁하기 번거로운데 이 상품은 간편하게 삶음 세탁을 할 수 있어 아기 옷 전용 세탁기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또한 세탁-헹굼-탈수 등 전 과정을 20분 만에 마칠 수 있는 쾌속 모드는 운동복, 양말 등 소량 세탁에 용이하다. 이 외에도 차일드락 기능을 통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부재 중에도 세탁을 할 수 있는 예약 기능까지 탑재했다.

가격도 저렴하게 구성했다. 정상은 21만9000원이며 행사 카드(마이홈플러스신한/신한/홈플러스삼성/삼성)



모델들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파세코 미니 클린' 세탁기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2만원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돼 19만9000원에 판매한다. 타사의 아기 옷 전용 세탁기 등 미니 세탁기들이 30~40만원대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다. 이 상품은 홈플러스 강서점, 안산점, 부천상동점 등 45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1000여가지 선물 한자리에 현대H몰, 선물세트 판매전

물량 20% 늘리고, 15% 할인쿠폰 한우·과일·참조기·굴비 등 다채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이 더현대닷컴, 현대H몰을 통해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4일까지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에서 '2020년 설 선물세트 판매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리고, 최대 15% 할인 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선물세트 신장률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27.3%였던 온라인몰 선물세트 신장률은 2016년 38.2%, 2017년 42.6%, 2018년 44.9%, 2019년 48.1%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400여 종과 건강·생활용품 600여 개 품목 등 총 1000여 개 품목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상품은 1등급 한우 등심·불고기·국거리 각 450씩으로 구성된 '현대



특선한우 정 세트(16만원), 사과(8개)·배(6개)로 구성된 '현대명품 사과배 난 세트(16만원)', 국내산 참조기(10미)로 구성된 '영광 특선 참굴비 매 세트(13만원)' 등이다.

또한 5만~1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사인머스켓(1개), 애플망고(4개)로 구성된 '사인머스켓 애플망고 세트(9만원)', '알뜰 전복 세트(국내산 전복 1kg, 8만원)'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현대H몰은 신선·건강·가공식품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설 선물세트 등 총 5000여 품목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H몰 단독 브랜드인 '현대명가' 정육 선물세트 40종을 선보인다. 온라인몰별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호텔 '설날 에디션' 올댓호텔 선보

롯데호텔의 프리미엄 호텔 셀렉트숍 서비스 '올댓호텔'은 2020년 경자년 새해 설을 맞아 감사한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 '설날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시그니엘 구스 다운 베개 2개와 연하장을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담아 제공한다.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최근 수면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슬리포노믹스(Sleep+

Economics)'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건강의 기초가 되는 슬리포노믹스 상품은 명절 웰빙 선물로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구스다운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헝가리산 구스 다운이 보드라운 촉감의 커버 및 인서트와 함께 숙면을 돕는다. 700g 중량의 풍성한 베개는 복원력이 좋아 사용자의 수면 자세에 맞춰 모양이 잡혀 편안하며, 우수한 통기성



롯데호텔 올댓호텔이 '설날 에디션'을 선보인다. /롯데호텔

으로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해 실용성도 겸비한 숙면 '필수템'이다. 올댓호텔 설날 에디션의 가격은 30만원, 디퓨저 추가 시 38만8000원이다. /박인용 기자